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이용자를 고려한 조경공간 조성방안

구자겸*, 노현지*, 윤희재**

*신구대학교 환경조경학과 재학생, **신구대학교 환경조경학과 조교수

1. 서론

최근 코로나팬데믹으로 인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 단절로 인한 우울감, 외로움 정신적인 고통을 받는 사람이 증가했다. 이처럼 집에 머무는 시간이 증가하고 있어 반려동물을 통해 외로움을 해소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증가하면서 아파트 주변, 관광지 등 어디서나 많이 볼 수 있다. 특히 사람들이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과 공원 주변에서 볼 수 있는데 늘어나고 있는 반려견 수에 비해 반려동물을 위한 환경이 부족하다. 정돈이 안 된 산책로가 있고 사람 위주의 환경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 식재와 바닥포장, 시설물 등으로 인한 반려동물의 피해는 고려되지 않아 많은 반려동물이 피해를 받고 있다. 이렇게 급증하는 반려동물로 인해 비반려인들의 피해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일부 단지의 경우 털 빠짐, 배변, 짖음, 냄새 등으로 반려동물 출입을 못하도록 막고 있으며, 반려인의 부주의로 피해를 받고 있는 비반려인도 늘고 있는 실정이다. 반려동물과 산책환경과 관련된 여러 논문들을 분석한 결과 산책의 중요성, 운동환경에 대한 개선사항과 구체적이지 않은 산책환경 개선 방안제시 등 표면적인 방안들만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앞선 문제들에 대해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반려동물과 산책환경과 관련된 여러 논문들을 분석한 결과 산책의 중요성, 운동환경에 대한 개선사항과 구체적이지 않은 산책환경 개선 방안 제시 등 표면적인 방안들만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현재 반려동물을 키우는 반려인들과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비반려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두 부류의 개선방안을 파악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갈 수 있는 해결방안과 반려동물의 산책환경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2. 연구방법

2.1 이론적 고찰

반려견에 있어서 산책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반려견 산책이 반려인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좁은 실내 공간에서 생활하는 도시 반려견들은 운동부족으로 과체중이나 비만으로 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러한 반려견들에게 최소한의 운동활동을 하며 스트레스 해소와 더불어 냄새를 맡을 수 있는 등 오감으로 자연적 요소들을 느낄 수 있다. 산책 등 신체움직임은 각종 질병을 예방한다.

물리적인 피해로 유독성 식물, 진드기 물림, 가시박힘 등이 있다. 먼저, 섭취 시 두통, 발열, 등의 증상들이 나타나는 식물로 은행나무, 국화, 남천 등이 있다. 구토와 설사 등 호흡곤란을 일으키는 식물로는 진달래, 시클라멘, 수선화, 디펜바키아 등이 있으며 섭취 시 심한 경우 사망까지 이르는 식물로는 백합등이 있다. 또한 식물에서 나오는 가시나 나뭇가지로 인해 가시가 박히거나 찢리는 경우도 있다. 진드기에 물렸을 경우 출혈과 빈혈이 생길 수 있고 여러 장기들을 감염시켜 뇌염, 신경염, 부정맥 등의 원인이 된다. 진드기 마비로 진드기의 암컷의 침샘에서 분비되는 신경독소가 혈관으로 퍼져 반려견의 하지가 마비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전신을 마비시킬 수 있다.



그림 1. 가시박힘 사례

비반려인들의 피해로 견주들이 배변을 치우지 않거나 배변봉투를 무단으로 투기해서 악취와 시각적으로 불편하다. 동물보호법 제16조에 따르면 견주들은 산책을 하면서 생기는 배설물을 즉시 수거해야 한다. 대변은 예외 없이 모두 수거해야 하고 소변은 의자나 계단, 엘리베이터 등 공용시설 위에 배설한

것에 한해 치워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에 따라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동물보호법 제 13조 2항에 따르면 소유자는 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민법 제 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민법상 특수법행위로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의 성질의 종류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점유자에 갈음하여 동물을 보관한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따라서 반려견 관리를 소홀히 하여 타인이 상해를 입게 된다면 '과실치상 및 과실치사죄'가 적용된다.

2.2 연구방법

설문조사 참여자 모집은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였다. 반려인과 비반려인으로 구분을 하도록 했다. 반려동물 산책 시 환경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 비반려인과의 공존을 위한 방안 모색을 했다. 해외 산책 환경을 사례분석을 통해 진행하였고 반려동물문화 확산에 따른 도시 공공 공간 인식에 대한 연구: 서울시, 반려견 놀이터 사례 중심 등 문헌조사와 사례분석을 통해 연구를 진행했다.

2.3 연구결과

카페를 통한 링크 공유, 대면 설문 등을 통해 총 147부의 설문지를 회수하여 분석에 이용하였다. 설문 응답자 총 147명 중 반려인은 68명(46.3%), 비반려인은 78명(53.7%)으로 비반려인 응답자 비율이 높았다.

먼저 공간에 따른 산책빈도를 분류한 그래프이다. 공원, 아파트 주변 산책로, 주택정원, 기타 중 아파트 주변 산책로가 63%로 가장 응답이 많았으며 그 중 매일 산책한다라는 답변이 32%로 가장 많았다. 반려견 유무에 따라 산책로가 달라지는 이유와 공간선택으로 분류한 그래프이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응답자 68명중 44명이 반려동물이 있고 없음에 따라 산책로가 달라진다고 응답했으며 이 중 반려견에게 안전한 길로 산책하기 위해라는 응답이 72%로 가장 많았다. 또한 그중 45%가 아파트 주변 산책로를 이용한다고 응답했다. 다음 반려견 산책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외부공간 중 잔디밭이 52%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산책 중 반려견이 피해 입은 외부환경요소 문항은 중복선택이 가능하도록 설문했으며 없음을 제외한 각종 쓰레기와 가시, 나뭇가지 등이 각각 38%, 19%로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반려인들이 반려견, 길고양이 등에게 입은 피해로 배설물로 인한 악취, 별레가 59%로 가장 많았으며 직접 겪었을 때 불쾌하다는 답변이 89%로 많았다. 마지막으로 공존을 위한 필요 공간 및 시설로 왼쪽부터 반려인, 오른쪽은 비반려인의 설문 조사결과이다. 두 부류 모두 공원 내 배변을 위한 공간 마련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3.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앞으로의 조경공간 조성에 있어 반려동물을 고려한 수종 선택과 산책에 영향을 주는 환경요인을 이해하고 비반려인과 반려인의 공존을 위한 방안을 조사 및 제시하는 것이었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간에 따른 산책빈도를 조사한 결과 공원, 아파트 주변 산책로, 주택정원, 기타 중 아파트 주변 산책로가 63%로 가장 응답이 많았으며 그중 매일 산책한다라고 답한 반려인들이 32%로 가장 많았다. 주변 환경에 반려견 산책은 반려견의 건강과 반려인들에게 있어 신체적, 정신적 등 건강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반려견 유무에 따라 산책로가 달라진다는 응답에 달라진다는 응답이 많았다. 그 이유는 반려견에게 안전한 길로 산책하기 위해라는 답변이 대부분이었다. 반려견이 피해를 입는 요소로 정리되지 않은 나뭇가지, 가시가 있다. 또한 섭취 시 두통을 유발하는 식물로 은행열매, 국화, 남천 등이 있고 구토와 설사를 유발하는 식물로 수선화, 진달래, 시클라멘 등이 있다. 이처럼 앞으로의 조경설계에 있어 반려동물에 피해가 가는 수종을 최대한 제외해서 식재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등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비반려인들이 반려견들에게 입은 피해로 배설물, 냄새, 개물림 등이 있다. 반려인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인해 길가에 버려지는 배설물이 늘고 있으며,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비반려인들에게 전해지고 있다. 또한, 관리부실로 일어나는 개물림사고가 심각하며, 비반려인뿐만 아니라 반려인과 반려견에게도 치명적이다. 이와 같은 문제들을 방지하기 위해 비반려인과 반려인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대안책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참고문헌

1. 물림사고 [한국소비자원].
2. 반려견 산책 및 운동을 위한 근린환경 인식 및 만족도 연구.
3. 배변투기 [머니투데이 기사].
4. 이혁재(2017) 반려동물문화 확산에 따른 도시 공공 공간 인식에 대한 연구: 서울시 반려견 놀이터 사례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